

시스루룩의 색채 특성에 관한 고찰

박 두 경

청운대학교 패션디자인섬유공학과 전임강사

Study about Color Characteristic of See-Through Look

Du-Keong Park

Full-time lecturer, Dep. of Fashion Design & Textile Engineering, Chungwoon University

(투고일: 2011. 11. 8, 심사(수정)일: 2012. 2. 6, 게재확정일: 2012. 2. 13)

ABSTRACT

Dresses reflecting human aesthetic consciousness are used as a way of expressing the inner desire of human beings. The desire to attract the opposite sex through sexual appeal among the human inner desires is the one innate characteristic that all human beings have. We may say that the *See-through look* emphasizes a sense of softness and femininity by exposing the skin and expresses bodily beauty by way of using see-through cloth. It is a fashion style that can express sexual appeal and eroticism of female most effectively. In this study, after observing the motivation of dress wearing and *See-through look* in the perspective of bodily concept and eroticism, colors of *See-through look* shown in the *Pret-a-Porter* Paris S/S collection from 2006 and 2007, a fashion style expressing eroticism was newly re-analyzed as romanticism and glam look particularly in 60, 80s compared with other times were re-created and evaluated. As a result of analyzing colors of the *See-through look*, Yellow Red(close to skin color) was revealed to be the highest(31.3%), followed by Red(9%), Purple Blue(7.2%), Yellow(7.2%), Purple(5.4%), respectively and in terms of color tone, pale and gray tones that have a sense of femininity and softness was revealed to the highest(20%) followed by ltg(11%) and dkg(9%). We may find the meaning of this study in analyzing colors of the *See-through look*, and the typical look of eroticism, which has never been tried before. It is required to identify chronological color features of the *See-through look* and the diversified characteristics of skin colors expressed in them to prepare useful data by which a sense of the *See-through look* can be utilized for color coordination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skin tone and dress by pursuing a more detailed method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Key words: body(몸), color(색채), Eroticism(에로티시즘), See-through look(시스루룩),
Sexy look(섹시룩)

I. 서론

인간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미적 욕구를 의복을 통해 표출한다. 의복은 인간의 미의식이 반영된 것으로서,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 중 성적 매력을 통해 이성의 관심을 받고자하는 욕망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욕구이며, 비치는 옷감을 사용하여 피부를 드러내거나 몸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부드럽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시스루룩(See-through look)¹⁾은 여성의 성적 매력과 에로티시즘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패션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시스루룩(See-through look)은 투시 기법을 통해 인간의 연상 심리를 이용한 간접적 노출로 직접적인 노출보다 에로티시즘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민미홍²⁾은 투시기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인지로 그치지 않고 섹스어필한 신체 부위를 감지하여 형태를 상상하는 충동을 일으켜 성적 연상에 이르게 되고 그로서 강한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패션에서의 에로티시즘은 자신의 매력을 강조하고 미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에로티시즘의 관점에서 볼 때 의복을 입는 목적은 착용자의 성적매력을 더해 주고, 나아가 이성으로 하여금 성적인 자극을 받게 함과 동시에 동성 사이에서는 서로 경쟁심을 유발해서 부러움을 일으키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여성들이 의복을 통해서 추구하는 미는 결국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이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관능적인 미의 효과를 크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³⁾

이처럼 시스루룩은 에로티시즘표현의 대표적인 룩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신체부위, 노출의 이미지에 관련된 표현방법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왔으나 색채 표현이나 배색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맨틱시즘과 글램룩이 재탄생해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패션스타일이 새롭게 재해석된 2006~2007년 2년간 파리 프레타 포르테 S/S 컬렉션에 나타난 시스루룩의 색채를 분석하였다. 이 기간의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시스루룩과 스킨 컬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시스루룩의 색채 특성을 알아보고 시스루룩의 연대기별 컬러 특징 및 시스루룩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피부색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부 톤과 의복의 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2006년과 2007년 S/S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시스루룩들 중에서 프린트가 없는 2색 이하의 톤을 가진 시스루룩 174점으로 정하고 퍼스트뷰 코리아 사이트⁴⁾를 통해 선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시어(sheer)한 옷감에 비쳐 표현되는 스킨 컬러 및 시스루룩에 사용되는 색상과 색조를 분석 해 궁극적으로 시스루룩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에로티시즘과 시스루룩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종종 성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자손을 번식시키고,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미와 더불어 에로티시즘을 추구하였다. 이처럼 인간은 생물학적 본능 상 끊임없이 성에 관심을 쏟으면서도 한편 문화적인 제약으로 인해 성적 능력의 발달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문화 수준이 발달되고 진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은 의식적으로 금기를 지속시켜 왔으며, 그 본능적인 충동은 바로 에로티시즘을 추구하는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능적인 욕구인 에로티시즘은 금기시킴에 따라 그대로 인간 행위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의 확대와 여성지위의 향상 등으로 인한 여성의 의식변화는 의상에서 나타나는 에로티시즘에 대한 내적 동기뿐만 아니라 외적인 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과거에는 은근하고 암시적으로 표현되었던 에로티시즘이 현대에는 더욱 직접적이며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복 사를 통해 볼 때 각 시대마다 다른 스타일의 의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흐름은 에로티시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에로티시즘의 의미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현대에는 에로티시즘이 노출과 나체의 미, 브래지어와 코르셋으로부터의 해방 등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현대사회에서 날로 중요시되는 기능성 추구에 발맞추어 복식에서의 에로티시즘도 이러한 의복의 기능성과 함께 추구 되어져 가고 있다.

에로티시즘 섹시이미지가 대표이미지로 섹시(sexy)란 '성적매력이 있는, 매우 화려한, 대중의 인기가 있는'을 의미⁵⁾하며 섹시룩(Sexy look)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한 디자인 또는 성적매력을 강조한 스타일로 많이 노출하였거나 타이트하게 맞는 의상들을 일컫는다.⁶⁾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스포티룩이 패션의 주류를 이루면서 섹시한 감각이 지배 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여성다움을 강조한 룩이 여러 가지 모양의 디자인에 의해서 시도되었는데, 살갗의 노출을 대담하게 하거나 부드러운 소재로 체형의 라인을 강조한 스타일 또는 속옷을 겉옷 화하여 사용하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여성의 자연스런 인체미를 강조하기위한 패션으로 여성의 인체를 속박하던 코르셋, 거들, 브래지어 등 많은 속옷들이 줄어드는 한편 노출과 여성 신체의 성적 매력을 강조한 선정적인 스타일이 성행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패션에서는 스포츠의 대중화, 에콜로지외의 등장, 신소재 개발과 함께 여성의 신체를

강조한 에로티시즘은 바디콘서스 스타일과 비치는 소재를 사용한 시스루 스타일의 패션 양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의복행위에서 자신의 신체를 되도록 많이 노출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모태로 회귀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평화와 풍요의 상징인 모태로의 동경은 우리 생명의 근원지에 대한 동경인 것이다. 또한 나체는 그것이 허용되었던 문명사회 이전의 자연스런 모습이기도 하다. 한편 노출된 신체부위 외에 다소의 경계선이 주어지면 이 경계선은 유혹을 유발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경계조월'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니스커트의 단선과 가슴부위를 살짝 노출시켜 경계를 지은 의상은 에로틱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나체보다는 신체의 한 부위가 살짝 노출된 모습에서 더욱 에로틱함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시스루룩은 천을 통해 살갗이 비치 보이는 룩의 총칭이자 살갗을 보이는 패션으로 1968년 경 부터 생긴 말이다. 오건디 같은 투명한 천으로 만든 블라우스, 셔츠 등으로 브래지어나 슬립 등의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누디룩(Nudy look), 베어룩(Bare look)이라고도 부르며 초기엔 누드룩(Nude look)이라 불려졌다. 비치는 상태를 말하며 1964년



〈그림 1〉 시스루룩
Alexander Wang, 2008 F/W
- <http://www.see-through-clothes.tumblr.com>



〈그림 2〉 시스루룩
Salvatore Ferragamo, 2009 F/W
- <http://www.see-through-clothes.tumblr.com>



〈그림 3〉 시스루룩
haider-ackermann, 2008 S/S
- <http://www.see-through-clothes.tumblr.com>

미국 디자이너 루디 게른라이히가 발표한 얇은 옷감인 시어(sheer)로 만든 살이 들여다보이는 블라우스의 총칭이다. 투시하다, 무엇인가를 통해 본다 라는 의미이며 시어룩(Sheer look)과 동의어로 쓰인다. 시어(sheer)는 복식에서 얇고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모든 종류의 직물을 일컫는데 실크, 울, 면 합성섬유 등에서 얇은 섬유를 말하는 것으로 시어 크레이프, 시어 울, 조젯, 시폰 등을 들 수 있다. 시어룩은 얇은 투명소재로 만든 에로틱한 이미지의 룩을 말한다. 시스루룩은 1960년대 후반 전위적 누드 룩인 반면 시어룩은 1970년대 섹시하고 에로틱한 페미닌으로 구별 할 수 있다.

시스루룩의 디자인적 특징은 얇고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여 <그림 1>⁷⁾과 <그림 2>⁸⁾에서 보이듯이 인체 곡선을 부각시키거나, 인체의 부분노출을 통해 관능미를 강조하거나 <그림 3>⁹⁾에서 보이는 것처럼 얇고 부드러운 소재로 인체를 자연스럽게 감싸 자연미와 인체미를 강조한다.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인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상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새로운 의상디자인을 위한 수단으로 인체를 사용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에로티시즘을 표현한 방법으로 시스루룩이 존재해왔다. 섹스와 매력력을 강조하여 비치는 천으로 육체의 성적 매력과 젊음을 발산하는 새로운 에로티시즘을 탄생시킨 계기는 60년대 팝 아트의 영향이었다. 성적인 육체를 가리면서 동시에 드러내 보이는 이 같은 방법은 보는 이의 에로티시즘적인 상상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시스루룩은 1980년대에 주춤했다가 1990년에 다시 등장하였다. 1990년대의 시스루룩은 기존의 부드럽고 환상적인 시스루룩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로 개발한 합성수지, 그물, 망사, 니트, 자카드 등의 신소재를 혼합하여 살갓을 부분적으로 비치게 하면서, 활동성이 강한 스포티한 감각과 섬세하고 우아한 느낌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시스루 룩은 육체나 살을 감싸는 동시에 육체의 굴곡을 드러내어, 감추고 드러내 보임으로써 선정적인 분위기를 유발한다.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 되어진 몸 담론과 더불어 패션에 있어서의 몸과 몸의 노출은 그 의미가 점점 커

져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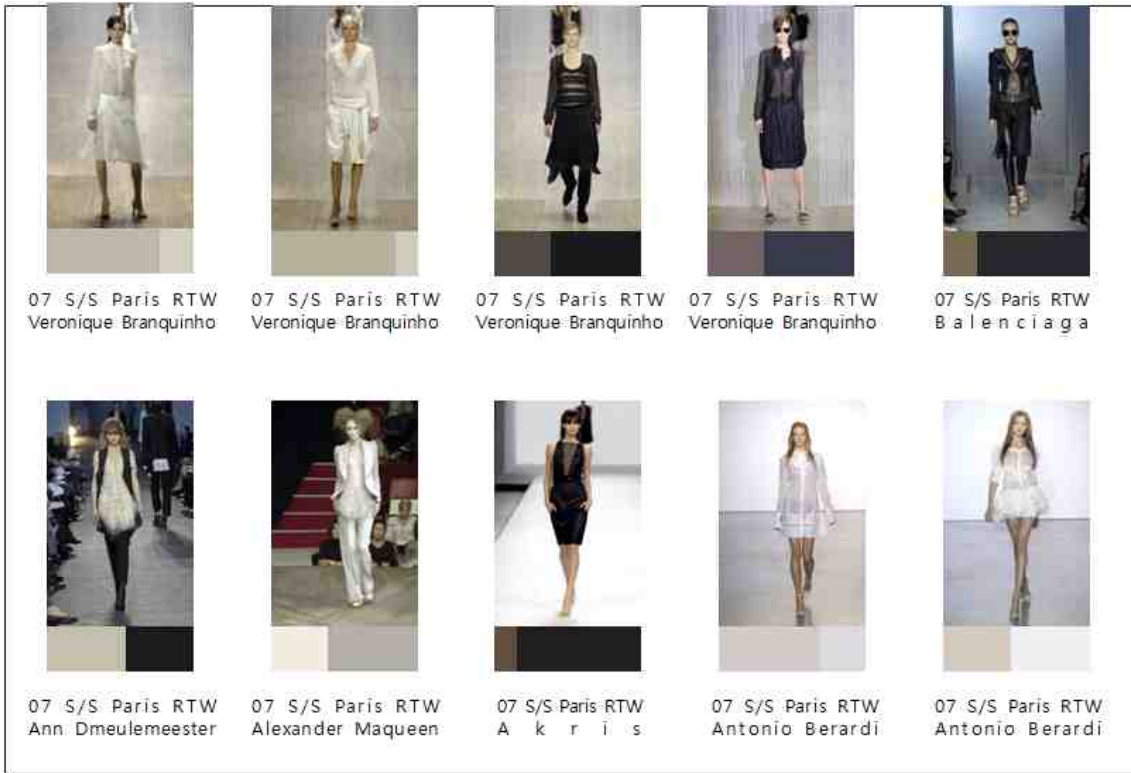
2. 시스루룩과 패션 트렌드

시스루룩은 계절 상 F/W보다 S/S시즌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2006년과 2007년 S/S의 패션 트렌드를 알아보았다. 이시기의 패션 트렌드는 다른 시대에 비해 특히 60, 80년대의 로맨티시즘과 글램룩이 재탄생해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대표적 패션스타일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었다. 2006년 S/S에는 레트로 느낌의 엘레강스한 요소와 모던한 디자인이 믹스되면서 섬세하고 부드러운 실루엣의 여성스러운 레이스, 러플, 고급스럽고 성숙한 분위기의 시어한 실크 소재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1980년대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내추럴리즘의 부활로 꽃무늬와 자연의 문양을 주로 사용하고 천연소재를 선호하는 에콜로지룩이 유행하였다. 2007년 S/S 시즌에는 뉴 로맨틱 트렌드가 부각되면서 얇은 망사를 이용해 주름을 잡아 꽃을 만들어 부드러운 외관을 표현하거나 다리를 시원하게 드러내는 섹시룩이 대거 등장 하였다. 이 시기 80년대는 다시 강력한 트렌드로 떠올랐는데 다수의 디자이너들은 바디컨셔스 스타일과 독특한 비침 현상을 표현하는 메탈-메쉬 슈프트를 제시 하였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케이프와 레깅스에서 힌트를 얻은 디자이너들을 선보였다. 또한 우주여신이 입을 법한 가볍고 시어한 소재의 가운과 변형 가능한 드레스를 제시함으로써 에로틱하고 페미닌한 스타일의 디자인들을 소개하였다.

Ⅲ. 분석내용과 결과

1. 분석내용

본 연구에서는 색채의 추출은 옷감에 비치는 피부색과 원톤의 불투명한 색 순으로 띠를 만들었다. 색 분석 방법으로는 디지털 색채 추출법으로 Adobe Photoshop CS를 사용하여 추출, RGB값을 구하였고 측색 된 모든 색채는 Munsell Conversion을 사용하여 HVC값으로 변환하여 색상과 색조를 조사하였다. 아



〈그림 4〉 시스루룩의 배색띠

래 〈그림 4〉는 선별되어진 전체 시스루룩들의 색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체 배색띠를 구성한 사례이다.

2006년과 2007년 춘하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통해 선별한 2색 이하의 시스루룩은 총 174개¹⁰⁾로 이를 통해 총 335개의 컬러를 추출되었다.

2.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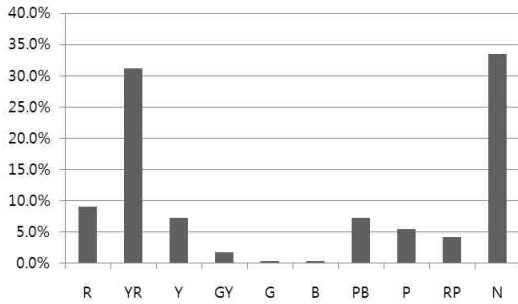
1) 색상 및 색조 분석

시스루룩의 색상 분포를 알아본 결과 유채색 222

개, 무채색 112개였으며 유채색의 색상 중 YR이 104개(31.1%)로 가장 많았고 R(9%), PB(7.2%), Y(7.2%), P(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B, G, GY 색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무채색의 경우 Black이 64%로 가장 많았고 White(25%), Gray(11%)순이었다. 기존 패션 분야의 색상 분포에 반해 시스루룩에 쓰인 색상의 특징은 Yellow Red가 31.1%로 33.5%의 무채색과 비등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비치는 소재의 표면이 스킨 컬러(skin color)와 결합하여 붉은 빛을 띠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2006/2007 S/S Paris Pret-a-Porter 컬렉션에 나타난 시스루 룩 색상의 표본수(N) 및 분포(%)

색상	R	YR	Y	GY	G	BG	B	PB	P	RP	N	합계
표본수	30	104	24	6	1	0	1	24	18	14	112	334
분포	9	31	7	2	0.5	0	0.5	7	5	4	34	100



〈그림 5〉 2006/2007 S/S Paris Pret-a-Porter 컬렉션에 나타난 시스루 룩의 색상 분포

시스루룩의 색조는 p(20%), g(20%), ltg(11%), dkg(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dk(2%), d(1%), lt(1%), b(1%)는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였다. 시스루룩의 색조는 색상이 연하고 차분한 느낌의 p, g, ltg 등의 색조가 주를 이루었다.

시스루룩의 색상을 먼셀의 40색상으로 나누어 분류한 결과는 Hue 5, 7.5, 10 영역에 속해 있었고 색의 채도가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 색을 값을 추출하기 위해 이미지를 나열하여 시어한 원단에 비치는 스킨 컬러, 불투명한 원톤 컬러의 배색띠를 만들어 육안으로 확인하여 본 결과 대부분의 시스루 원단에

비친 스킨 컬러는 차분하고 은은한 느낌의 색채 이미지를 나타냈다.

2) 2006, 2007 S/S의 색채 트렌드와 시스루룩의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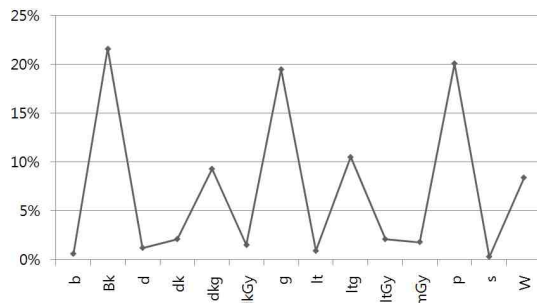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06, 2007 S/S의 시스루룩의 색채 분석과 2006, 2007 S/S 색채 트렌드를 비교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패션넷코리아¹¹⁾에 의하면 2006 S/S에는 컬러리스 그룹이 여전히 중요하게 보여졌고, 극도로 어두운 컬러보다는 다양한 색감을 가진 미드 톤의 누트럴, 그리고 웹 계열의 딥하거나 스트롱한 컬러들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차분한 가운데 시즌리스의 감각이 두드러졌다. 또한 2007 S/S에는 누트럴 무드가 지속되고 화이트트된 컬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클린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다양한 기미로 한층 풍부해진 오렌지와 함께 레드, 블루의 대조적인 컬러가 동시에 부각되고, 화이트를 머금어 한층 소프트해진 브라이트 컬러가 신선함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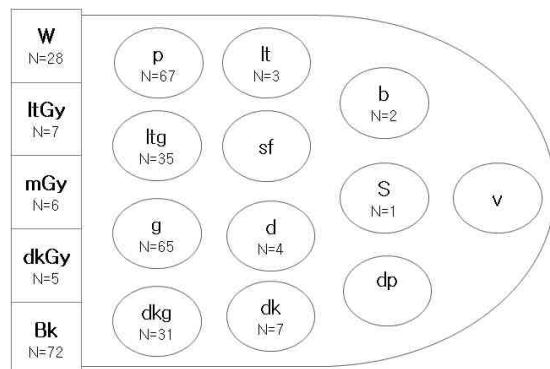
이와 비교해 볼 때 시스루룩의 색상은 트렌드 컬러보다는 계절과 비치는 소재의 영향으로 오렌지, 레

〈표 2〉 2006/2007 S/S Paris Pret-a-Porter 컬렉션에 나타난 시스루 룩 색조의 표본수(N) 및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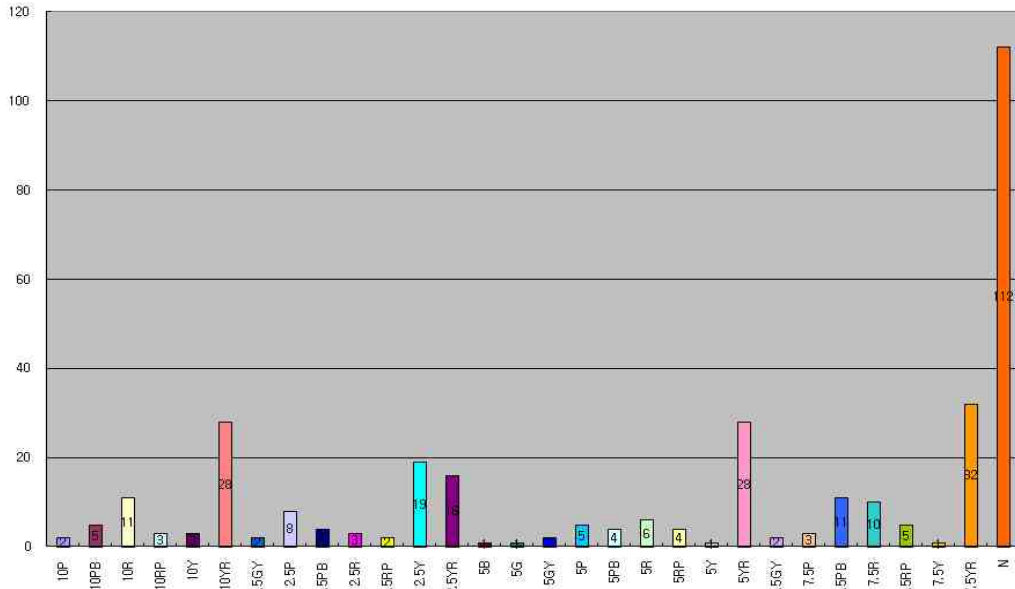
색조	b	Bk	d	dk	dkg	dkGy	g	lt	ltg	ltGy	mGy	p	s	w	합계
표본수	2	72	4	7	31	5	65	3	35	7	6	67	1	28	333
분포	1	22	1	2	9	2	20	1	10	2	2	20	0	8	100



〈그림 6〉 2006/2007 S/S Paris Pret-a-Porter 컬렉션에 나타난 시스루 룩의 색조 분포



〈그림 7〉 2006/2007 S/S Paris Pret-a-Porter 컬렉션에 나타난 시스루 룩의 톤차트(N)



〈그림 8〉 2006/2007 S/S Paris Pret-a-Porter컬렉션에 나타난 시스루룩의 면색 40색 분포

드, 옐로우 등 난색 계열이 주를 이루었고 그린과 블루 계열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무채색과 퍼플, 레드 퍼플 계열은 트렌드 컬러의 영향으로 전체 시스루룩 색상 분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톤은 컬러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그레이시한 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트렌드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시스루룩의 무드와 소재의 특성 때문이라 고려되어진다.

V. 결론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인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상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새로운 의상디자인을 위한 수단으로 인체를 사용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에로티시즘을 표현한 방법으로 시스루룩이 존재해왔으며 현대에 와서 섹스와 매력을 강조하여 비치는 천으로 육체의 성적 매력과 젊음을 발산하는 새로운 에로티시즘을 탄생시킨 계기는 1960년대 팝 아트의 영향이었다. 시스루룩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의복형태를 통해 여성의 파워를 강조하던 1980년대에 들어

잠시 주춤했다가 1990년에 다시 등장하였다. 1990년대의 시스루룩은 기존의 부드럽고 환상적인 시스루룩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로 개발한 신소재를 혼합하여 살갓을 부분적으로 비치게 하면서, 활동성이 강한 스포티한 감각과 섬세하고 우아한 느낌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 되어진 몸 담론과 더불어 패션에 있어서의 몸과 몸의 노출은 그 의미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따라서 시스루룩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새롭게 획기적인 시스루 원단 및 컬러의 개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시스루룩의 변천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로티시즘의 시각에서 바라본 의복 착용 동기와 노출 부위에 따른 의미와 상징성 및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몸의 노출 양식으로서의 시스루룩의 근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에로티시즘과 몸에 대한 질적 연구와 시스루룩의 색채 분석을 통한 양적 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시스루룩의 색상 분포를 알아본 결과 유채색 222

개, 무채색 112개였으며 유채색의 색상 중 YR이 31.1%로 가장 많았고 R(9%), PB(7.2%), Y(7.2%), P(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B, G, GY 색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무채색의 경우 Black(64%), White(25%), Gray(11%)순이었다. 기존 패션 분야의 색상 분포에 반해 시스루룩에 쓰인 색상의 특징은 Yellow Red가 31.1%로 33.5%의 무채색과 비등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비치는 소재의 표면이 스킨 컬러(skin color)와 결합하여 붉은 빛을 띠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스루룩의 색조는 p(20%), g(20%), ltg(11%), dkg(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dk(2%), d(1%), lt(1%), b(1%)는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였다. 시스루룩의 색조는 색상이 연하고 차분한 느낌의 p, g, ltg 등의 색조가 주를 이루었다. 이런 색조가 나타난 것은 시스루룩의 특성인 피부 톤이 비쳐야하기 때문이며 또 이런 색조들이 여성스럽고 부드러우며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시스루룩의 색상을 40색상으로 나누어 분류한 결과는 5, 7.5, 10 영역에 속해 있었고 색의 채도가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 색을 값을 추출하기 위해 이미지를 나열하여 시어한 원단에 비치는 스킨 컬러, 불투명한 원톤 컬러의 배색띠를 만들어 육안으로 확인하여 본 결과 대부분의 시스루 원단에 비친 스킨 컬러는 차분하고 은은한 느낌의 색채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시스루룩의 연대기별 컬러 특징 및 시스루룩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피부색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부 톤과 의복의 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시스루룩의 느낌을 색채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만드는 작업이 요구되어진다.

참고문헌

- 1) "see-through look",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0. 5. 20, <http://www.naver.com>
- 2) 민미홍 (1989),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 3) 김유경, 김혜경 (2004), 고대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디자인포럼21*, 7, p. 56.
- 4) 자료검색일 2011. 4. 30, <http://www.firstviewkorea.com>

- 5) 라사라교육개발원 편 (1995), *복식대사전*, 서울: 라사라, p. 287.
- 6)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1995), *패션 큰 사전*, 서울: 교문사, p. 41.
- 7) 자료검색일 2011. 6. 30, <http://see-through-clothes.tumblr.com/post/233945968/alexander-wang-fall-2008-rtw>
- 8) 자료검색일 2011. 6. 30, <http://see-through-clothes.tumblr.com/post/99786124/salvatore-ferragamo-fall-2009-rtw>
- 9) 자료검색일 2011. 6. 30, <http://see-through-clothes.tumblr.com/post/101861819/haider-ackermann-spring-2008-rtw>
- 10) 자료검색일 2011. 4. 30, <http://www.firstviewkorea.com>
- 11) 자료검색일 2011. 6. 30, <http://www.fashionnetkorea.com>